



### 신심으로 작품빛는 늦깎이 조각가

불미전 금상받은 한기늬씨

"선생님의 작품에서는 작가의 무철한 신념의지와 작품에 대한 애정의 뜨거운 열정이 전해져 오는걸 느낍니다."

10월초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전시회를 마치고 구룡사에서 연장전을 갖고 있는 조각가 한기늬씨에게 관람객들은 이렇게 작품감상의 소감을 털어 놓았다. '구도'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한씨의 첫 개인전으로 불교인에게뿐만 아니라 타종교인에게도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켜 11월 25일까지 구룡사에서 연장전을 갖는다. 또 26일부터 30일까지는 부산 국제문화센터에서 작품전을 갖는다.

제 15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에서 구도1,2로 금상을 수상한 한씨의 조각가 한기늬씨. 한씨는 서른일곱의 늦은 나이에 조각에 눈을 뒀다.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미다하고 세계 조각인들의 교육현장인 이태리 카라라국립미술대학 조각과에 유학중이다.

"이태리 피에트라산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매일같이 108배와 천수경을 외면서 닦는 '마음탁기 수행'이 이번 전시회의 작품을 구성하고 형상화 시키게 했어요."

한씨의 신심이 그대로 담겨 있는 이번 전시회에 전시된 조각품들은 대리석과 브론즈를 이용한 것으로 그의 인상을 대변해 주는듯 하다. 문학소녀처럼 한없이 여리고 섬세한 일면도 있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당차고 분명하다.

한씨는 이태리에서의 학업에 만족치 않고 내년 3월 영국왕립미술학교의 문을 두드릴 예정이다. 또 한국불교의 민간홍보사절로서 세계 곳곳에 불교를 알리고, 경주에 국제불교문화센터를 운영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조각을 하면서 정진을 멈추지 않는 한씨는 12월 5일 피에트라산타로 돌아가 내년 10월경 피렌체에서 "한기늬 초대전"을 가질 예정이다.

### 오승희 독창회... 「엽주」등 공연 23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소프라노 오승희씨의 독창회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경원대와 백제예술대에서 강의의를 하고 있는 오승희씨는 이번 무대에서 비발디와 슈만 그리고 구노의 주옥같은 곡들을 들려준다. 또 「엽주」 「무곡」 「할매」등도 들려주는 오씨는 그간 불교음악에 몰두해 오다가 클래식곡을 발표하는 무대

를 마련했다. 피아노 반주는 김도실(경희대강사)씨가 맡는다.



오승희씨를 마련했다. 피아노 반주는 김도실(경희대강사)씨가 맡는다.

## 탈춤 속 스님 "정토신앙의 전범사"

### 「불교와 민속」 관련 세미나 잇따라

한국불교문화사 연구회 「불교와 민속」의 유기적 관계를 도출해 내는 학술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 연구회(회장·홍기삼)는 지난 4일 동국대에서 「한국불교 민속학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네번째 학술회의를 가졌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홍기삼교수(동국대)가 「불교민속의 범위와 성격」 오승희교수(동국대)가 「불교의 현공의례와 민속」 윤관봉교수(대전대)가 「한국불교와 가면극의 주제양식」 권무영교수(인천시립대)가 「한국불교 민속론의 현대적 과제」 이창식교수(한성대)가 「불교민속과 세시풍속」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최순열교수(동국대)의 사회로 김태근(경희대)교수, 김의숙(강원대)교수, 남근우(한양대)교수가

불교와 민속의 연구 방향과 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홍기삼교수는 불교민속의 개념을 설정 "불교가 공간적 전파와 시간적·역사적 조건에 따라 수용되어져 생활상에 활동되어져 온 문화현상"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홍기삼은 「불교민속」과 「민속불교」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하고 불교민속은 제례 개념을 다양하게 수용했으나 불교적 핵심을 잃어가지 않았으며 반면 민속불교는 불교의 체계를 신임의 핵심을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오승희교수는 불교에서의 현공의례는 민중들의 소망이 담긴 갖가지 민속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논지 아래 「현공의례는 민중들의 의식 속에 있는 불교의 진실된 생명정신과 인간의 종속이 어우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가면극 가운데 등장되는 스님들의 역할과 그 의미를 밝힌 윤관봉교수는 "가면극은 속가를 방명한 중과 이를 받아들이려는 기존의 사람들과의 갈등의식에서 빚어지는 교혼극"이라고 요약했다. 이어 윤관봉교수는 대만 놀이판에 등장하는 상좌승은 놀이판을 해체시키려는 의도가 아닌 민중에 게 복을 주려는 의도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관봉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자칭 가면극(탈춤)에 등장하는 승려의 언행이 속되게 표현되고 있어 「타락승」으로 비쳐 지는데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윤관봉교수는 "가면극은 억압받는 민중과 현실에 절망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토신앙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며 "그래서 승려는 민중과의 허물없는 교감을 위해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서씨 풍속에 깃든 불교적 의의를 탐구한 이창식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세시풍속의 양상과 불교적 성격, 불교 세시풍속의 유형들을 세부적으로 밝혔다. 이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불교민속의 연구방향이 보다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자리잡아 가야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민속학회 전국대회 민속학회가 23회째 가진 민속학 전국대회는 지난달 29일 부산 건양대학 경성관에서 열렸다. 김진사상, 조상승배사상 등 민간 생활에 정착된 정신적 양상과 도교, 불교, 풍수지리 등 사상적 근간을 주제로 한 이 학술회의에서는 권무영교수가 「민속불교사상」부분의 발표자로 나섰다.



탈춤에 등장하는 스님은 민중의 애환을 함께하는 정토신앙의 전범사라는 새로운 학설이 제기됐다.

관교수는 이 학술회의에서 논문 「관공의례의 사상」을 발표했다.

「호국불교니 호암불교니 하던 지금까지의 한국불교에 대한 교과서적인 단점을 연동회와 관공회를 통해 검증하려 했다」고 밝힌 권교수는 연동회와 관공회는 민간과 왕권의 유기적 체계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교수는 정월에서 동지에 이르기까지 행해진 고려대의 「등불」의례가 갖는 인간차원의 의의들을 세밀히 분석하기도 했다.

이 두 학술회의 외에도 한국역사 민속학회도 지난달 29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학술회의를 가졌다. (관련기사 6면)

불교와 민속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민간과 불교, 왕권과 불교로 나뉘어 설정된 한국불교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이 관계 학자들의 의견이다.

### 원각사지 10층석탑 특별전

공중유물전시관(관장 이명희)은 개관 두돌과 서울정도 6백년맞이 특별전을 10월31일부터 12월31일까지(오전9시~오후5시,매주 월 휴관)두달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최근 원각사지탑(국보 제2호) 훼손과 그로 인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열려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원각사지탑의 조각들이 가까이 살펴볼 수 있는 너무 높고 조각이 많아져, 일일이 1백55점만에 달하는 조각을 탁본한 자료와 흑백 칼라사진 자료가 전시됐다.

공중유물전시관은 2년전부터 탁본자료를 준비해 왔으며, 원각사지탑의 2분의 1크기의 축소



◇경우가 탄 치성광여래의 소재범회(3층남면) 소관 원각사지탑 조성도 계획해 왔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이 탑의 조성에는 약 4억의 예산이 소요돼, 예산 부족으로 아직 사업착수를 하지 못하는

### 사진·탁본, 연말까지 덕수궁서 연혁·구성등 매주 토요일 강연도

서 교계의 관심이 요청된다.

공중유물전시관은 또 서울시와 공중문화재단의 후원으로 특별전시 기간동안 원각사지탑에 대한 토요특별강연회(4회)를 가지며, 도록(圖錄), 팸플릿, 강연자료집, 설명서, 비디오 상영등의 도용자료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강연회는 5일 「원각사 연혁」(한수영 전통극대 총장), 19일 「원각사탑 조각내용」(홍기삼 동국대교수), 12월3일 「원각사탑 건축특징」(김정기 한양대교수), 12월17일 「원각사탑과 경천사탑」(정영호 한국교원대교수)등의 내용으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공중유물전시관 강당에서 열린다.

### 불심시심 (3)

양지에는 꽃 음지에는 눈

桃李芳菲一色春  
도리방비일색춘  
南家解笑北家嘲  
남가해소북가기  
掃地玉碎金文下  
인파옥쇄금과하  
傍有回頭嗔俗人  
방유회두계치인

꽃다운 복숭아, 오얏꽃 한 빛의 불  
양지에선 웃지만 음지에선 정그러  
양귀비 백옥 같은 돌 함 아래 쓰러지니  
옆에서는 고개 돌려 웃는 이 있다  
방유회두계치인

이 시는 청매(靑梅)선사가 마음도 아니 부처도 아니라(非心非佛)는데 대해서 읊은 시이다. 시 자체만 두고 보더라도 모든 것이 있는 현실 그대로임을 말하는 듯하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一切唯心造) 하지만 마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대상의 경계 없어야 일어날 수 있는가. 꽃이 피었으니 보는 이의 얼굴에도 꽃 못지 않은 화사한 열광을 띠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대상이 중요하지만 꽃을 보기도 아름답다고 느끼는 마음이 없다면 열광빛의 웃음이 있을 수 없다. 이는 대상보다는 마음의 존재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있는 실상의 진여한 참모습에는 마음이나 대상을 모두 제외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지난 주에 보았던 두 글이 없었더라면.

봄이 되어 양지마을에는 이미 꽃이 피었으니 봄이 왔다고 기뻐해 마지 않았지만 음지 마을의 깊은 골짜기에는 아직도 눈이 남아 있다. 양지마을의 파스칼이 부럽다 못하여 자신의 삶에 짜증이 날 수도 있다. 날마루의 시간이야 다 같을 지 모르지만 삶의 처지에 있어서 느끼는 시간에는 매우 깊은 차이가 있다. 이것이 현실의 진리이니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이 바로 참의 실상이다.

천하의 미인인 양귀비가 그의 미모에 의하여 그려진 나리울 때문에 일어난 반군을 진압하고 그에 따른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마외관에서 이 미인을 처형할때 때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의 미모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움을 받아 했던 한 푸리의 여인은 통쾌한 웃음을 자아냈을 것이니, 한 사실에서 잊갈리는 기쁨 슬픔이란 그가 처한 상황의 현실이지 그것을 느끼게 되는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하니 이것이 마음인가 진리인가 아니면 '나'라고 느껴야 하는 나의 실제, 바로 그것인가.

### 불음 가득 · 범향 가득

## 책방 여시아문은



국내 최대의 불교 전문 서적만을 취급하는 서점입니다.

60여 평의 여유로운 공간에 국내외의 불교관련 서적으로만 3천 2백 여 종을 갖추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초심자에서 학자에 이르기까지 독자들 헌분헌분의 기대에 따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감증을 풀어드립니다.

국내외의 서지정보(희귀본, 사적, 논문, 잡지) · 불교학술논문 · 불교문화예술정보 등 다양한 불교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이외에도 항상 불자 여러분의 공부에 충실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공간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가 배치, 컴퓨터 검색 체제, 그리고 언제라도 편한데 앉아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의 만남과 함께 범향 등락 음미할 수 있는 곳, 책방 여시아문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시아문은 불자들의 자랑입니다.

여시아문은 상모에 귀의하는 서점입니다. 불법 향포를 위해 회향하는 서점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세계화를 실천하는 서점입니다.